

## 시각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다



27여 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분야를 보급하는데 노력해 온 황태민 씨는 2021년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상했다. 2012년 준공한 부산 허딩크 드림필드 축구장에서.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꽁, 꽁”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진다. 평생교육지원팀 팀장으로 근무 중인 황태민 씨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종목인 쇼다운을 시연하며 나는 소리다. 어지간한 볼링공이 부딪히는 것만큼 큰 소리가 공간 가득히 울려 퍼진다.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다보니 공에서 소리가 크게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리만으로 알아채서 공을 상대편 골대에 넣거나 막아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보니 시끄럽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 오는데 지역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도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황태민 씨는 지난 27여 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분야를 보급하는데 노력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황태민 씨는 2021년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상했다.

### 시각장애인과 시작된 인연

황태민 씨가 시각장애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가 7살 되던 해였다. 옆집에 이사 온 시각장애인 형과 친해지고 싶었던 마음에 점토를 이용해 입체 한글을 만들고, 축구공에 비닐을 씌어 소리가 나는 공을 만들어 함께 놀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고교시절에는 하안마음회라는 봉사동아리를 결성해 시각장애인을 도와 함께 걷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과 친분을 쌓다 보니 왜 그들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지 깨달았지요. 당장 집 앞으로 나가지만 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보니 위험했지요. 그런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시각장애인에게 작지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

음을 품게 됐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건설회사를 다니던 황태민 씨는 알고 지내던 시각장애인을 통해 부산시시각장애인협회에 직원 채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직으로 지원해 1994년 합격했다. 2000년에는 협회 내의 인사이동으로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발령을 받았고 2004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 본격적으로 시각장애인 복지 업무에 전념해왔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발굴에 노력

시각장애인 대다수가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다보니 운동 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발병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황태민 씨는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1:1로 매칭해 등반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운동을 통해 활력을 찾는 시각장애인들을 보게 된 그는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길 바랐다.

바다가 있는 부산에서 안전 요건만 충분히 갖췄다면 시각장애인들 역시 문제없이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황태민 씨는 2008년 ‘장애는 파도를 넘어’라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해양스포츠 체험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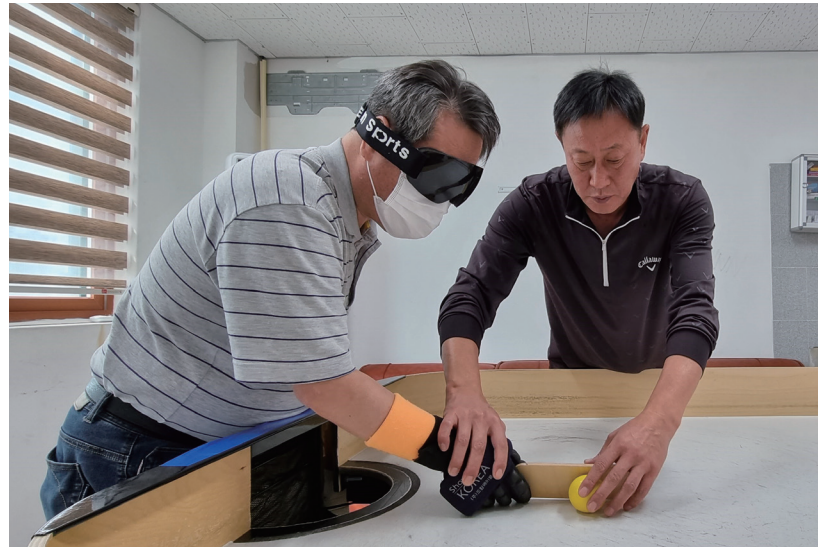
수상보트와 바나나보트, 카누 체험 등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 행사는 여러 후원을 통한 지원금과 모자란 300만 원 가량은 스스로 부담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우려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동시에 시각장애인 역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 개선 효과도 비장애인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장애는 파도를 넘어’는 이후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정식 프로그램이 됐으며, 2015년까지 8회에 걸쳐 매년 여름 부산의 광안리와 송정 해수욕장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함께하는 해양스포츠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밖에도 황태민 씨는 2012년 시각장애인 골프대회 개최, 시각장애인을 위한 히딩크 드림필드 축구장 준공, 2013년 전국시각장애인 종합대회 부산 유치 지원활동 등 시각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발굴과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 쇼다운 종목들 시각장애인에게 전하다

“2015년에 세계시각장애인대회를 서울에서 유치했을 당시 우리나라가 쇼다운이라는 스포츠에 아시아 최초로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탁구와 비슷한 시각장애인 스포츠 종목인 쇼다운을 설명하는 황태민 씨.

쇼다운은 탁구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변형한 스포츠 종목으로 손을 보호하는 장갑과 고글을 착용한 뒤, 길이가 긴 나무 배트를 사용해 소리가 나는 공을 쳐서 상대방의 골 주머니에 넣으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각장애인들이 즐기기 안전하고,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무엇보다 테이블과 도구만 있으면 되기에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점이 쇼다운의 매력이었다.

“쇼다운을 처음 접하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일단 서로 지속적으로 공을 주고 받을 수 있었기에 운동량이 상당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알맞은 운동이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황태민 씨는 서울세계시각장애인대회의 국가대표 선발 예비전을 부산에 유치하도록 노력한 이후에도 3회에 걸쳐 전국 시각장애인 쇼다운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를 주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 리투아니아 시각장애인 쇼다운 세계대회, 2019년 이탈리아 시각장애인 쇼다운 세계선수권 대회의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쇼다운 대회가 자주 열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는 꾸준히 부산·경남지역 선수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밖에 황태민 씨는 시각장애인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스포츠 종목인 파크골프와 게이트볼이 부산·경남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정성을 쏟고 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시각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 많이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 비장애인의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주길 바랍니다.”

글 편집부